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5호 2019년 2학기(2019. 9. 1 - 2020. 2. 28)



## CONTENS

04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06 우송간호 역량 강화

- (1) 취업역량
  - 2019년 취업현황
  -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특강
  - 중앙대학교 협력병원 김부섭원장님특강
  - 졸업 동문 인터뷰 (주한미군 공군 오산기지병원-박소희)
- (2) 학습역량
  - 씨날 특강
  - Active-learning
- (3) 임상실무역량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습
  - 서울아산병원 실습
  - 삼성서울병원 실습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실습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 아주대학교병원 실습
  - 국립암 센터 실습

20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송간호

- (1) NCLEX-RN 합격 소식
  - NCLEX-RN 취득현황
  - NCLEX-RN 취득 동문 인터뷰(정유진, 유다혜)
- (2) 해외 연수 프로그램
  - ACE+ 사업 싱가포르 해외연수
  -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 BEST PRACTICE 우즈베키스탄 해외연수

28 미래의 '후배양성'에 힘쓰는 우송간호

- (1) 수시
  - 2019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 2019 수시 최종결과
  -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
  - 2020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

32 우송 간호 이모저모

- (1) 즐거운 대학 탐구생활
  - 우송대학교 축제
  - SOL-SUP
- (2) 간호학과 일상 엿보기
  - 간호학과 전학년 미팅
  - 제 9회 간호학과 학술제
  - 4학년 국가고시 응원
  - 4학년 동창회 발대식
  - SIS-BRO EVER PROGRAM 경진대회
  - 1학년 Sol-Together 결과발표회
  - 동아리 인터뷰- 치매파트너즈, 절주
  - 새로운인 교수님 소개

코로나 19는 어떻게 대처할까 ?

- 슬기로운 간호생활
- 3,4학년 온라인 실습
- 4학년 세브란스 시모의면접
- Learning-concert (3학년-피임관련/4학년-간호과정)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조 채 은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건학이념	자립 · 단정 · 독행
대학비전	THE SMART UNIVERSITY FOR THE WORLD
학과비전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
교육목적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간호리더로서의 전문직 간호사 육성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비판적인 사고 및 능력을 가진 간호사를 육성한다.</li> <li>2. 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간호전문인을 육성한다.</li> <li>3. 간호수준의 국제화,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리더를 양성한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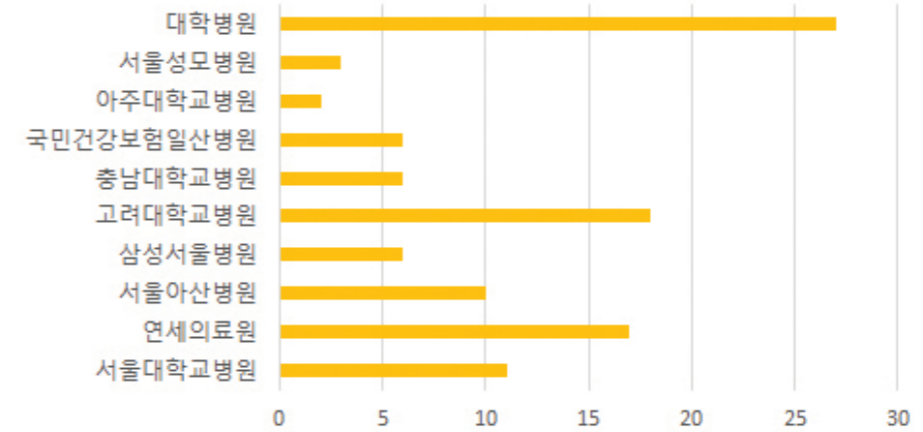
핵심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문제해결 역량	<p>PO1. 인간돌봄과 관련된 간호철학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p> <p>PO2. 과학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간호기술과 간호과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p> <p>PO5. 건강관련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기획하며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p>
창의융합 역량	<p>PO3. 간호 전문직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p> <p>PO4. 건강관리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p>
글로벌간호 역량	<p>PO6. 국내 · 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인지한다.</p> <p>PO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역량을 습득한다.</p>

# 꿈이 현실이 되다

## 2019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취업 현황



2020 졸업생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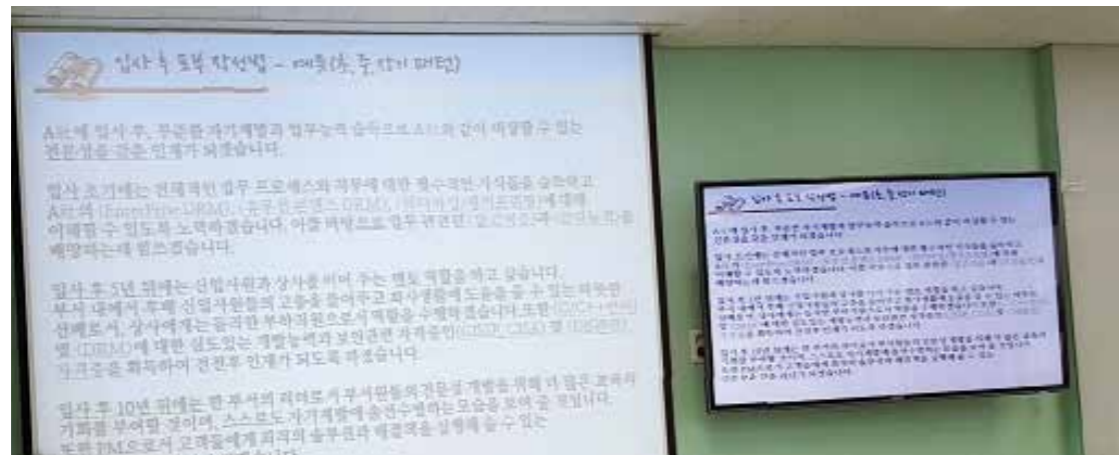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교수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지난 2019년에도 어김없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 4학년 채용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11명, 연세의료원 17명, 서울아산병원 10명, 삼성서울병원 6명, 고려대학교병원 18명, 충남대학교병원 6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6명, 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 12명, 인하대학교병원 9명,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 4명, 건양대학교병원 3명, 서울성모병원 2명, 아주대학교병원 2명 (중복합격포함)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 리더'를 표어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간호특성화과정에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정과 미국 간호사 면허인 NCLEX-RN 집중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국제수준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최연우 기자 / 자료 출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 3학년 대상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자기소개서 작성!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지난 9월 19일, 20일, 27일, 총 3일에 걸쳐 우승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학생경력개발센터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이 진행되었다. 본 특강은 내년에 상반기 병원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행된 특강이다.

본 특강은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강사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자신이 학기마다 했던 활동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들은 3학년 박은화 학생은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좋고 취업이 내년 상반기에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더 매끄러운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설희 기자 / 사진 출처: 정설희



## 봉사란 무엇인가

###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 특강



2019년 9월 4일 우승대학교서캠퍼스 보건의료 과학관 101호에서 오후 6시부터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김부섭 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우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중앙대 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에서 2019 학계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19.07.19~2019.07.29까지 카자흐스탄 의료봉사에 동참하였다.

특강은 '봉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간단한 병원 소개와 함께 중앙대 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의 봉사 발자취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그중 2018년부터 10년간 봉사를 계획 중인 카자흐스탄의 현재 상황과 이번 봉사활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알마티주 딸딕고르간시에 가서 고려인 최초 정착지 추모비 건립과 관련된 일화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강사는 봉사에 대한 결론으로 "봉사란 타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전하였다. 특강을 마무리하며 간호학과 실습 진행과 관련되어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승대학교 존 엔디컷 총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정소영 기자 / 사진 출처: 정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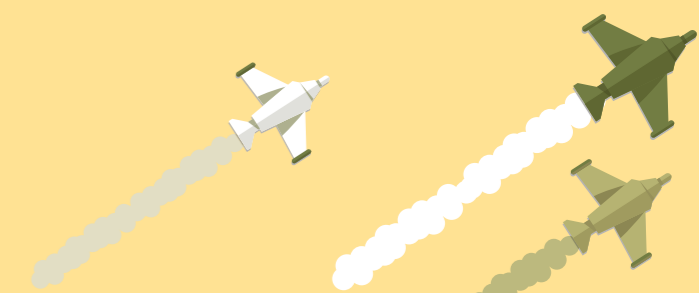
# 주한미군 공군 오산 기지 병원 (51<sup>st</sup> Medical Group)에 근무하는 동문소식 박소희 동문 인터뷰



오산 미 공군 기지 병원(51st Fighter Wing Medical Group)은 한국에 있는 오산 미 공군 기지 내에 있는 병원으로 미 공군 군인들과 공군 소속 군인들의 가족, 은퇴자들을 위해 외래진료실과 입원 병동,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산 미 공군 기지의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산 미 공군 기지 병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이곳 내과(Internal medicine) 외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우승대 간호학과 3기 졸업생인 박소희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산 미 공군 기지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승대학교 간호학과 3기 11학번 졸업생 박소희입니다. 오산 미 공군 기지병원(51<sup>st</sup> Fighter Wing Medical Group)에서 내과(Internal medicine) 외래 간호사로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있으며, 주로 의사가 환자를 보기 전 prescreening, 환자 투약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Q. 오산 미공군 기지병원(51<sup>st</sup> Fighter Wing Medical Group)의 지원 방법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한국 일반 병원들과 달리 채용 공고가 주기적으로 일정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병원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주시하고 있다가 2017년 하반기에 채용 공고가 난 것을 확인해 지원했습니다.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NCLEX-RN 면허증은 필수이고, 최소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경력을 쌓으면서 영어와 임상 지식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영어공인성적(IELTS, TOEFL, IBT)점수를 기재한다면 조금 더 합격에 플러스 요인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영어공인성적을 기재했습니다.

**Q. 오산 미군 기지병원(51<sup>st</sup> Fighter Wing Medical Group)에서 일하기 위한 영어실력수준과 선배님의 영어공부방법을 알려주세요.**

A. 병원에서 환자, 주치의 그리고 다른 health care worker들과 소통해야 할 경우가 많아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저만의 영어공부방법은 TIME 지를 정기 구독을 해서 심심할 때 읽기도 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원서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쉴 때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미군기지 내 병원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용산 미군기지 121 hospital을 견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꿈만 꾸고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니 이루어진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한국병원은 아직 간호사가 자신을 보호하면서, 주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현재 저는 다른 한국 병원들에서 근무할 때보다 훨씬 더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후배들도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근무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화경 기자



## 학술정보 활용 능력 키우기 CINAL 특강



2019년 10월 22일 우송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INAL 특강이 진행되었다. CINAL 특강은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이다. CINAL 특강에서 우송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법, 기본 연산자를 이용한 기본 키워드 검색방법,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지정보형식 (Reference Style)을 이용하여 인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CINAL 특강에 참여한 박지은 학생은 “논문 검색방법과 또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지정보형식 (Reference Style)을 알게 되어 나중에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양현수 기자 / 사진출처: 양현수



## Biochemistry Contest 간호학과 1학년 Active Learning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W13 6층 강당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의 Biochemistry Contest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겨울학기 동안 배운 생화학 과목의 Renal Physiology를 주제로,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다. 평가 기준은 Clarity, Creativity, Preparation/Presentation skills로 총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관찰할 수 있어 흥미로웠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조채은 기자 / 사진 출처: 조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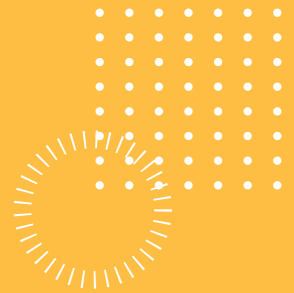
# 간호연구 따라잡기

## 2학년 연구방법론 Active Learning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보건의료과 학관 W5 101호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Active Learning Concert'가 진행되었다. 본 경연은 총 15개의 조가 참가하였으며 각 조가 연구한 간호학과 및 간호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5개의 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3팀(총 6팀)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러닝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간호연구지식을 이용하여 직접 주제를 정해 조원들과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하였다.

◆ 신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신유진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습 인터뷰

## 박종민 학생



2주간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습을 무사히 마친 4학년 박종민 학생과의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학생의 소감을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Q. 안녕하세요.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새롭게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박종민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병동인 102병동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하면서 주요 신장내과 질환인 Chronic kidney disease와 Nephrotic syndrome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환자의 검사나 처치 시 함께 관찰할 수 있어,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hemodialysis, Peritoneal dialysis에 대하여 관찰한 후 자가학습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공부하여서 지금까지도 자세히 기억이 납니다. 또한, venogram, renal biopsy를 임상에서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Q. 실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수간호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실습면담시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처음 OT 시간에 간단한 병동 소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 도중 실습생들이 신장내과의 주요 처치인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양한 검사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종료 당시 실습생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에 대해 질문해주셔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이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성인간호학 이론공부를 할 때, 심장과 신장 부분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처치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장내과를 실습하였기에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에 대해서 관찰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 신장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론공부를 할 때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례에 맞추어 공부하며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어려워하지 않으며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박종민 학생

## 서울아산병원 실습 인터뷰 정설희 학생

서울아산병원에서 2주간 아동 간호학 실습을 진행한 정설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정서적 지지 역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Q.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새로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정설희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원 135병동에서 아동 간호학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한 135병동은 소아 심장과 소아 심장외과,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과, 소아 중환자 과가 함께 어우러진 병동이며 그중 소아 심장외과가 주를 이루는 병동입니다. 해당 병동에는 소아 심장 전문 간호사가 병동에 상주하며,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를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팀 간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병동을 구역별로 A, B, C, D로 나누어 전담 환자를 간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Q. 실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A. 수간호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실습면담시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처음 OT 시간에 간단한 병동 소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 도중 실습생들이 신장내과의 주요 처치인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양한 검사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종료 당시 실습생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에 대해 질문해주셔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Q. 실습이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전문적인 지식 기반의 간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제공하며 긍정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선천적 질환이 있는 환아가 병동에 많은 만큼,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는 보호자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보호자와 항상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보호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 선생님께 아이의 상태에 대해 편하게 말하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간호사와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환자의 보호자 간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과 실습을 통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Q. 실습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A. 소아심장외과가 주를 이루는 병동인 만큼 실습하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심질환이 있는 환아들의 심음을 청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 중, 심실중격결손 환아의 심음을 직접 청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심실중격결손 환아에게 어떤 양상의 심 잡음이 나타나며 정상 심음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장외과에서 자주 시행하는 시술인 심혈관 조영술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만 간단히 배우고 넘어갔던 부분을 실제로 관찰하고 시술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술 과정과 심혈관 조영술을 마친 환자에게 어떤 간호가 언제 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고, 추후 관련 환자를 간호하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항상 실습을 처음 나갈 때는 항상 긴장되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항상 웃는 얼굴로,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실습에 임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실습 학생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본인 또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습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실습 초반에 실습 병동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해 놓는다면, 방향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전에 사전 학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주요 질환과 자주 쓰이는 약물 및 진단검사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실습에 임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정설희 학생



## 삼성서울병원 실습 인터뷰 이주미 학생

여름, 겨울을 지나 다수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습을 마무리하였다. 그중 본관 14E 병동에서 실습을 마친 이주미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전반적인 환경과 특수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4학년 이주미 학생입니다. 제가 실습한 부서는 삼성서울병원 본관 14E 병동이고, OS/NS 분야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인 다윈(DARWIN)이 간호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켜 줘, 다른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습 때 직접 경험한 다윈은 간호기록의 측면에서 매우 편리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윈과 같은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곳에서 간호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실습하면서 경험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있나요?**

A. 학생간호사로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때 입원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병원 환경에서 불안을 느낄 환자와 보호자들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치료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실습 이후 타 병원에서도 환자와 소통하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우선, COVID-19로 인해 임상 실습에 나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서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Nursing skills'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공부방법이 많이 도움되었기에 관심을 두고 시청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공 공부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느슨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극복해서 좋은 결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이주미 학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실습 인터뷰 기도운 학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이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통해 배운 것과 인상적인 부분을 후배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기 위해 4학년 기도운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실습 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환경과 특수 장비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기도운입니다. 저는 2019년 겨울학기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 82병동에서 선택과목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한 82병동은 신경외과 부서로 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등의 질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자체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가회 시간에 다른 병동에서 실습하는 동기들과 실습한 내용 및 느낀 점을 공유하며 다른 병동의 질병, 검사, 약물 등을 알 수 있었고 각 병동의 환경에 맞게 발달하여 있는 특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을 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 공부와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A.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신경외과병동에서 필요한 간호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웠던 dermatome와 각 질병에 따른 수술 전, 후 간호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SBAR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 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누구나 첫 실습에서는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실습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입니다. 긴장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병동의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질병 및 쓰이는 검사, 약물 등등을 미리 공부해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 있게,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선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꼭 챙겨 드시고, 체력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실습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누구나 다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볼 것이며 배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박종민 학생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인터뷰 신주학 학생

작년 하계실습 시 약 40명의 우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의 뜻깊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신주학 학생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실습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승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신주학입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실습했습니다. 제가 주로 관찰한 환자들의 질환은 prostate cancer, cataract, thyroid cancer, cholelithiasis 등이 있었습니다. 주로 환자가 수술실 내부의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균술을 지키는 것과 원활한 수술 진행을 위해 Time out을 통한 환자 확인 과정을 관찰하며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실 파트장님과 Circulator 선생님들을 통해 수술마다 집중해서 관찰할 것들과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

A. 수술실에서 지도해주신 한 Circulator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수술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잘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선생님과 집도의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선생님의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려주셨던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Q. 실습하면서 배운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A. 이론 수업에서는 수술 전, 후 간호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웠다면 실습에서는 배운 것보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많은 수술 기구들을 다룬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실제 장기를 봤을 때 구분하기 힘들어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실습 소감과 함께 후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A. 수술실 실습은 간호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병동 실습보다 제한되어 있지만, 그만큼 수술실 내부 환경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뿐만 아니라 회복실에서도 실습하면서 수술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실습기회가 생긴다면, 이론을 공부하고 간 뒤 임상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질문하며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신주학 학생

## 아주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조은별 학생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실습과 평가가 한차례 마무리되었다. 이후 아주대학교병원 실습 우수자 학생으로 선발된 조은별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Q.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새로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실습한 부서는 PS(성형외과)와 OS(정형외과) 병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라고 하면 미용을 생각하지만, 아주대학교 특성상 중증도가 높아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구순 구개열, 다지증, 합지증, 피부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가 목적인 성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 간호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습 중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

A. 심한 교통사고로 피부이식을 하시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인해 실습 내내 환자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친근하게 대화를 걸어주시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저희를 걱정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생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더 열심히 실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계신 환자분의 낙상 예방 간호와 목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선생님께 검토를 받은 후 직접 시범을 보인 뒤 환자분이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교육한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며 안정적으로 느끼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A.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주요 검사들, 처치들을 공부하고 미리 부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실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 성실하게 임하고 어느 실습이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습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지식을 공유하며 공부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모두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승간호 파이팅!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조은별 학생

## 국립암센터 실습 인터뷰 이진주 학생

국립암센터에서 2주간 성인간호학 실습을 이진주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습을 통해 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이진주 학생의 실습 소감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Q.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새로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진주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의 62병동에서 성인간호학 2 과목 실습을 진행하였고 해당 병동은 비뇨기, 전립선암을 주로 다루는 병동이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병원의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암 전문병원으로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전국의 환자분들이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습 첫날 병동 오리엔테이션 중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암을 어둡고, 침울하게 바라보는 시각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암을 이겨내기 위해 누구보다 밝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실습 중 "다음 치료 때 봐요. 선생님!" 라고 말씀하시며 밝은 웃음으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관찰하며 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Q. 실습 중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A. 현재의 건강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입원 시에 DNA(do not resuscitate)를 작성하시고, 1인실에서 보호자와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중 환자분께서 돌아가셨던 것을 관찰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고없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아무렇지 않은 듯 노력하시지만 힘들어하시는 보호자분을 보았습니다.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서 사후 처치를 진행하시면서도 보호자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맡은 일에 있어서, 간호사 자신의 감정에서 흔들림 없이 간호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앞으로 간호사로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Q. 실습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A. 아무래도 이론으로 배웠던 간호는 수치나 증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듯해서 단순 암기와 같이 느껴졌지만, 실습하면서 경험한 간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간호사가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 기전과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동료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간호에 포함해 함께 간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실습으로 느낄 수 있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론에서는 환자 간호에 대한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실제로는 루틴 업무 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보호자의 항의,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발현 중에 대해서도 통합적 사고를 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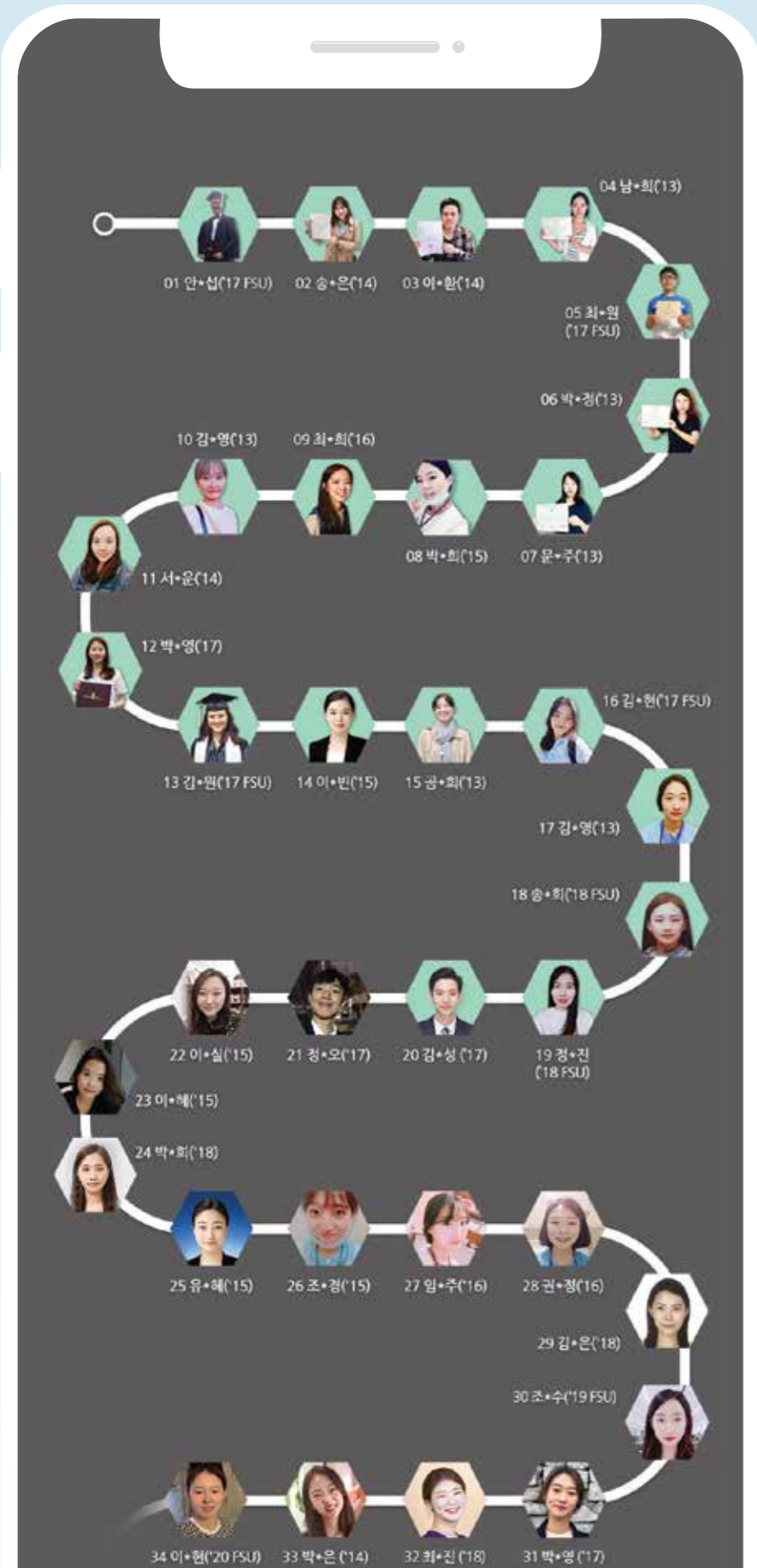
###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저는 실습을 하기 전 1, 2학년 재학 중에는 실습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실습을 시작한 3학년 시기에는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다는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4학년이 되어 실습 기간을 되돌아보면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정말 많이 배웠고 전문적으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 때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실습을 통해 미래에 겪을 낯설에 대해 조금이나마 미리 알아볼 기회로 여기며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는 것이 미래의 본인을 위한 큰 한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습에 있어 성실하게 임하고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는 그 무엇보다 큰 성장을 이룰 기회이며 선생님들께서는 찰나의 순간에도 이러한 성실성과 적극성을 알아보십니다. 따라서 실습을 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본인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간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이진주 학생





## 간호의 세계화와 준비된 간호 리더 NCLEX-RN 취득자 현황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미국 간호사 면허증)은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각 주의 간호 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다. NCLEX-RN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즉,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필수적인 면허이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중 NCLEX-RN을 취득한 졸업생은, 2013년도 5명, 2014년도 3명, 2015년도 4명, 2016년도 1명, 2017년도 6명, 2018년도 8명, 2019년도 6명, 2020년 1명으로 2020년9월 기준 총 34명이 되었다.

◆ 양현수 기자 / 사진출처 : 학교홈페이지

## 간호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우수 간호 미국 간호사 면허(NCLEX-RN) 취득, 정유진 동문 인터뷰

2018년 3월 15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정유진 동문은 Fairmont State University (FSU)에서 '2+2' 복수 학위 취득 후 미국 간호사 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Registered Nurse)를 취득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2013년 이후 정유진 동문은 19번째에 속하게 된다. 정유진 동문의 면허 취득 과정과 느낀 점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NCLEX-RN에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감과 합격 후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시험을 보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쁩니다. 페어몬트 주립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이었고, 또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사는 나라인 만큼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NCLEX-RN 취득 소식이 들려오면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지는 재학생들이 많습니다. 합격한 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A. NCLEX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uworld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형식들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책이나 수업시간에 해놓은 필기 자료를 보면서 풀어나갔습니다. 페어몬트 주립대학에서는 단원마다 시험을 보는데 NCLEX 형식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IGN) 수업에서 사용하는 Evolve 사이트를 사용하여 과제를 하며,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처음에는 나중에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요즘에는 아직 어떤 일이 저에게 맞는지 아직 고민하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때를 위한 발판을 튼튼하게 다져놓자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NCLEX-RN 취득이 다양한 도전을 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도전하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민 기자 / 사진출처: 정유진 동문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세계로 뻗어 가다 미국 간호사 면허(NCLEX-RN) 취득, 유다혜 동문 인터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기 졸업생 유다혜 동문은 2017년 7월 29일 미국 간호사 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를 취득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2013년 이후 유다혜 동문은 25번째에 속하게 된다. 유다혜 동문의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과 취득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Q.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격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 미국 간호사로 일할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불확실하지만 했던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느낌이라 뿌듯하고 기쁩니다.

**Q.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A. 면허 취득을 위해서 일단 미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준비물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작성한 인터넷의 글이나 NCLEX 수강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서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느긋하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많은 학생이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합격한 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A.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확실히 의학용어나 영어로 된 간호용어에 강하고, 기본적으로 NCLEX라는 과목과 형식에 대해 먼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실전 문제와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후 일을 하며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개념을 많이 까먹은 상태여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며 공부를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공부 중인 재학생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송대학교에서 공부 중이신 미래의 간호사 선생님들, 우송대학교에서 간호사로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행운인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소중한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며 끊임없이 꿈꾸고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상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다영 기자 / 사진출처: 유다혜 동문



# ACE+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 4차산업 혁명과 Health Care



지난 2019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 동안 ACE+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 온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사업'을 확대 및 개편한 '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업'의 일환이다. 1학년 3명, 2학년 5명이 임준서 교수님의 지도로 팀을 이뤄 '4차산업 혁명과 Health Care'라는 주제로 싱가포르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SGH(Singapore General Hospital)에 방문하여 실습실과 병원 및 대학교 내부의 시설을 살펴보고 Lion Befriender 요양원에서 로봇 'May Ling'을 작동시켜 로봇의 동작을 따라 해 보았다. 'May Ling'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 능력 증진을 위해 동작 시범을 보이는 로봇이다. 또한, 학생들은 Serious Game Asia의 관계자와 SGH의 간호부장님을 만나 직접 Serious Game이 쓰이는 사례에 대해 생생히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Eldex (Eldercare Exhibition & Conference Asia)에 방문하여 노인을 위한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발전된 헬스케어 상품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황재은 학생은 "직접 4차산업 혁명의 변화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Serious Game에서 간호사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다. 간호와 4차산업 혁명을 융합하는데 간호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몸소 깨달았다."고 답했다. 학교생활과 장래의 꿈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큰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감을 전했다.

◆ 최연우 기자 / 사진 출처: 마예지 학생



## 남양주 현대병원과 동행하는 의료봉사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0명은 남양주 현대병원과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지역에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8박 9일 일정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지역은 의료기술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많아 의료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0명은 접수처에서 활력 징후측정과 혈당측정을 하였고, 진료실 안내와 진료보조, 주사실에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이 외에도 구충제 복용 지도,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비타민 복용 등 의료서비스와 현지 고아원과 천주교 성당을 찾아 학용품, 장난감, 의료기구, 긴급의약품 등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는 현대병원 의료진 35명, 현대병원 협력업체, 우송대 간호학과 재학생, 중·고교생 등 자원봉사자 포함 총 8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외국어대학 재학생 20명은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남양주시 의료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간호학과 봉사 참여자 중 민채연 학생은 "해외 봉사를 처음 참여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 스스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라고 말하며 봉사활동의 소감을 나타냈다.

◆ 강화경 기자 / 사진 출처 : 남양주현대병원



##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우송 간호 BEST PRACTICE 해외 연수

2019년 8월 21일 수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 5박 6일 동안 김진숙 교수님과 2, 3학년으로 구성된 8명의 학생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HAQIQAT Clinic, 시립병원, HAQIQAT 양로원, Mobile Clinic(이동 진료), 장애 보육원, 열방병원에 다니며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체계를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병원 실습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체험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그 나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연수에 다녀온 2학년 황지인 학생은 "Best Practice 연수에 참여해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고 2년간 배운 러시아어를 통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봉사를 통해 나눌 수 있었고 좋은 기회를 주신 학과장님과 5박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8명의 학생을 책임지신 김진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연수를 통해 미래에 더 나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신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조은별 학생



## 예비 우송간호인들의 도전

2020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우송대 간호학과 2020년도 수시 면접고사가 서캠퍼스 W5(보건의료과학관)에서 시행되었다. 일반전형 II(학생부 교과 전형)는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0월 19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수시 면접고사에는 1,027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다.

면접 전, 학생들은 면접 준비 및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 등의 시간을 가졌다. 면접 후에는 Sol hospital의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OR(Operating Room, 수술실)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원자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을 하고 Sol hospital 체험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다. 10월 22일 화요일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 면접고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 전술이 기자 / 사진 출처: 전민경 학생



##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모집요강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모집요강의 가장 큰 변화는 간호학과만 적용되었던 일반 I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형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에는 교과(일반 I, 일반 II, 독자적 기준, 지역 인재), 종합(잠재능력, 고른 기회, 글로벌 인재), 특기자(외국어 우수자) 전형이 있었고 2020학년도에는 교과와 특기자 전형의 경우 2019학년도와 같으며, 종합(잠재능력, 글로벌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2020학년도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되었다.

성적 반영 방법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일반 I 전형 이외의 전형은 7과목을 반영하고 일반 I 전형은 12과목을 반영하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국어·영어·수학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59 이상일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같지만, 가산점이 32점에서 40점으로 증가하였다.

2020학년도 간호학과와 모집요강은 대체로 2019학년도와 같지만, 2019학년도에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으로 변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간호학과는 신설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 김혜민 기자

## 새로운 민들레 홀씨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20학년도 수시 최종결과

년도	지역	학교	모집시기	전형	학과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일반 I 전형	간호학과	11	227	20.64:1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일반 II 전형	간호학과	40	441	11.03:1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지역인재전형	간호학과	6	53	8.83:1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간호학과	11	277	25.18:1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글로벌인재전형	간호학과	5	19	3.80:1
2020	대전	우송대학교	수시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간호학과	1	10	10.00:1

우송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면접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전형의 모집단위로는 일반전형 I, II, 지역 인재, 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 인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이 있다. 다양한 전형 중 간호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57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7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2020학년도 간호학과 수시 경쟁률은 일반 I 전형은 20.64:1로 작년 경쟁률 10:1보다 증가하였고 일반 II 전형은 11.0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18년도의 경쟁률인 12.71:1의 경쟁률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7명 늘렸기 때문이다. 작년 보다 상승한 경쟁률을 통해 우송 간호의 발전과 경쟁률 상위 학과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 신유진 기자 / 사진출처: 유웨이어플라이 파워경쟁률 홈페이지 참고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공체험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



우송대 간호학과 2020년도 수시 면접고사가 서캠퍼스 W5(보건의료과학관)에서 시행되었다. 일반전형 II(학생부 교과 전형)는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0월 19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수시 면접고사에는 1,027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다.

면접 전, 학생들은 면접 준비 및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 등의 시간을 가졌다. 면접 후에는 Sol hospital의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OR(Operating Room, 수술실)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원자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을 하고 Sol hospital 체험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다. 10월 22일 화요일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 면접고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보이는 등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다. 10월 22일 화요일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 면접고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 백동호 기자 / 사진 출처: 백동호 기자

## 우송 간호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2020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



2020년 8월 7일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명, 8월 12일 서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0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이 진행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소개하고, 간호학과 입학 후 배우게 되는 기초 해부생리학과 기본간호학의 일부 지식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고등학생들과 함께 핵심기본 간호술 중 하나인 활력 징후를 직접 측정해 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고등학생들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이명선 학생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로 직접 학생들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학과에서 재학생이 직접 찾아가 여러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었기에 뿌듯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정상화 학생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면접과 진학에 대해 걱정을 크게 하고 있음을 느꼈기에 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의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었고, 고마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이다영 기자 / 사진 출처: 이명선 학생

\_01

## 즐길 준비된 우송인들 여기 모여라!

우송대학교 축제



2019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2일까지 우송대학교 캠퍼스에서 이틀간 축제가 진행되었다. 학과 별로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간호학과 부스에서는 오레오 튀김, 소시지 그릴구이, 스파클링 에이드 등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동전 던지기, 종이 뽑기를 통해 상품을 증정하기도 하는 등 즐거운 게임들도 준비하였다. 저녁에는 다비치, 임한별, 자이언티 등 많은 초대가수의 열정적인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로 답하며 축제에 열기를 더해 나갔다.

이번 축제는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다양한 시도로 축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 정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최수연 학생

\_02

## 우송인을 위한 특별한 시작점

‘2019학년도 SOL-Start UP 프로그램’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입생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SOL-Start Up(SOL-SUP) 프로그램이 우송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SOL-Start Up(SOL-SUP)은 신입생에게 필요한 리더십, 창의성, 학습역량 강화와 외국인 교수와의 학습을 통한 글로벌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양필수 2학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대학에 소속되어있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일정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일정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진되는 두 번째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 type과 B type의 두 분반으로 나누어진다.

입학 전 프로그램으로는 프로그램 안내, 창의 및 리더십 교육,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창의 활동에는 주제에 맞게 팀별로 화면과 동영상을 조합하는 활동을 하였고, 리더십 강의에서는 우송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우송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학과 오리엔테이션은 학과별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입학 후 일정으로는 Action Learning을 활용한 비전 찾기, 조별 활동 중심의 활동과 스크랩북 및 자기소개 카드를 제작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학습방법과 동기 전략을 찾을 수 있는 학습법 교육과 SW 기초교육이 있으며 총 36시간의 프로그램을 끝으로 SOL-Start Up (SOL-SUP)은 마무리되었다.

◆ 한수민 기자 / 사진 출처: 정소영 학생

# 간호학과  
일정 엿보기



\_01

## 미래를 설계하는 우송간호

간호학과 전체미팅

지난 8월 29일 목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우송대학교 도서관(W1) 지하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 전체 미팅이 진행되었다. 1학기 교내 행사에 이어 학생회 소개, 기숙사 규정 및 생활규칙과 V/S 그리고 재학생 활동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재학생 활동보고는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GPS 영어연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전체 미팅에 참여한 간호학과 1학년 김예원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며 원하는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 정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최우영 학생



\_02

## 함께 나누는 지식,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

제 9회 학술역량강화 경진대회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송대학교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술제가 열렸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간호 관련 발명품 기획안’을 주제로 한 공모전이었다. 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1부는 간호 관련 발명품 우수기획안 발표를 하였다. 2부는 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고 전 학년이 모두 섞여서 구성된 조로 골든벨이 시작되었다. 골든벨의 문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간호학 실습, 해부생리학, 정신건강, 아동 간호학, 여성 간호학 등에서 출제되었다. 이날 학술제 골든벨 행사에서 1등을 한 1학년 김예원 학생은 “저희는 아직 1학년이라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려웠는데, 문제가 나오자마자 술술 푸는 언니들을 보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언니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각 학년의 학생들이 섞여 문제의 답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함으로써 학년 간의 마음이 더욱더 모일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직접 생각한 간호 관련 발명품을 구상하고 발표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학술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

◆ 최우영 기자 / 사진 출처: 최우영 기자



\_03

##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1, 2, 3학년 응원영상 촬영



2020년 1월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치러진다. 이에 우송대학교 1, 2, 3학년이 모두 모여 4학년들의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응원 영상을 촬영하였다. 한마음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촬영을 마무리하였다. 응원 영상 촬영이 끝나고 2학년 학생들의 응원, 이야기를 듣고자 짧은 인터뷰를 하였다. 학생들은 “제가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친해지고 제가 많이 의지했던 언니가 이번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봅니다.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대학교 4년 생활 중 가장 마지막 시험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아서 언니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4학년 언니와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감사합니다. 시험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라는 말을 전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학과 대학생활에서 가장 마지막 시험이다.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 조채은 기자 / 사진 출처: 박금옥 교수



\_04

## 졸업을 앞 둔 우송간호인, 마지막 만남을 가지다

### 4학년 전체 미팅 및 8기 동창회 발대식

2019년 12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보건의료과학관(W5) 411-3호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미팅 및 8기 동창회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정수경 외 8명의 교수와 2020년 제8회 졸업생 일동이 참가하였다. 1부는 동문회 발대식, 2부는 교수와의 대화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학과장과 동문회장의 인사, 임원 소개, 동문회 규칙 낭독, 교수의 격려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교수와의 대화 시간에서 지난 시간 동안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수에게 감사장을 드리고,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모교와 개인 발전을 목표로 한 행사가 훈훈한 분위기 아래 마무리되었다.

◆ 김지영 기자 / 사진 출처: 김의현 학생

\_05

## 선배와 후배간의 간격을 좁히는 그날까지

### Buddy Buddy 경진대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버디버디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버디버디 경진대회는 2019년 2학기 동안 진행된 버디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결과를 UCC 혹은 PPT로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5개의 조가 각자의 활동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풀어 나타냈다. 발표를 통해 맛집 탐방, 카페탐방, 볼링, 영화 보기, 산책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버디버디 경진대회에서 '자립'을 수상한 1학년 간호학과 윤수진 학생은 "한 학기 동안 동기 그리고 선배들과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웠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라고 버디버디 경진대회에 대한 생각을 표했다.

◆ 최수연 기자 / 사진 출처: 최수연

\_06

## 배움, 봉사 그리고 기쁨의 보람찬 현장을 전하다

### 1학년 Sol-Together 발표회



지난 2020년 1월 29일,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과학관(W5) 101호에서 15시부터 17시까지 '솔투게더(SOL-TOGETHER)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솔투게더(SOL-TOGETHER)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전공 수업인 '기본간호학'에서 배운 기본간호 술기를 봉사활동과 연계함으로써, 핵심기본간호술을 익히고 재능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총 16팀으로 구성되어 겨울방학 동안 2번에 걸쳐 봉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그간 각 16개의 팀이 직접 구성하고 계획했던 봉사활동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팀은 공통으로 "친구들이 아닌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됐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술기로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할 수 있어 기뻐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전솔이 기자 / 사진 출처: 전솔이

\_07

## 치매 환자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다

동아리 '치매파트너즈' 인터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 그중 하나인 치매파트너즈 동아리에 속해 활동하는 최지혜 학생을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Q. 안녕하세요, 치매파트너즈 동아리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치매파트너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적극적인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환자의 관심과 지지역할, 치매 예방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한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곳에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분들이 있으시므로 주로 색칠공부, 그림 그리기, 장난감 놀이, 박수 체조 등과 같은 인지프로그램을 위주로 활동합니다.

**Q. 기억에 남는 활동과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지프로그램으로 콩 고르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담당 할머니께서 다른 분들보다 인지가 뛰어나시고 정정하셔서 프로그램이 빨리 끝났고 저는 끝났으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른 콩들을 다시 콩들을 모으는 통에 합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저에게 욕을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어 시무룩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께서 어르신들이 노력해서 하신 건데 보는 앞에서 섞어버리면 허무함을 크게 느끼신다고 정리할 때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섞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하여 심각한 치매를 앓고 계셔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르신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치매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은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파트너에 동참하셔서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 신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최지혜 학생

\_08

## 건전한 음주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동아리 '절주' 인터뷰



절주 동아리는 간호학과 중앙동아리로서 간호학과와 주요 동아리 중 하나이다. 절주 동아리는 절주 문화 알리기와 혈압, 혈당측정 등 다양한 교내 캠페인 활동을 하며,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교외 활동을 하고 있다. 절주 동아리의 박선화 학생과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Q. 절주 동아리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주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절주는 금주와 다르게 술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알맞게 먹자는 의미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1/2잔으로 천천히 조금씩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마시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절주 동아리의 활동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A. 저희 절주 동아리의 활동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교내 활동에는 헬스 포 유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비활동기를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동안에는 학교 안의 학생, 교수님, 학교 관계자분들의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 드리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술은 1/2잔을 마시면서 절주를 하자는 의미로 술 1/2잔을 나누어 주고, 절주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교외활동으로 대전시에서 주최한 걷기 행사를 다녀왔는데, 걷기 행사에 참여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절주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회식이 잦고 과음하는 날이 많은 중년층에게 절주 문화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의 위험요소에 대해 알리고 팸플릿을 나누어 주면서 절주의 의미 자체를 알리는 활동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절주 동아리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A. 다양한 우송대학교의 봉사동아리에 절주 동아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절주 동아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동아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하는 봉사보다는 차별화되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주문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절주에 대하여 알리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동아리와는 다르게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절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절주와 금주의 차이 또는 음주 자체에 관해 공부하게 되는데, 음주하면 위험이 많아지는 질병이나 술을 마실 때 빨리 취하지 않거나 술에 빨리 깨는 간단한 상식을 얻게 되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절주 동아리는 회원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선배들과 좀 더 친해질 기회 또한 절주 동아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최지혜 학생

\_09

## 2020학년 1학기 신임교수 인터뷰



강창희 교수

2020년 새 학기를 맞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반가운 교수가 돌아왔다. 강창희 교수는 2011학년부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기틀을 다져온 교수로, 잠깐의 공백 후 다시 우송 간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오랜만에 학교로 복귀한 소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창희 교수는 여름학기부터 아동 간호 실습 등을 맡은 아동 간호학 담당 교수로서 학생들과 만나게 될 예정이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1년부터 6년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아동 간호학 담당 교수로 일했었는데, 올해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기 졸업생 배출을 비롯한 학과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다시 오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오랜만에 학교에 다시 오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학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는 학생들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교수님들도 여전히 계시고, 저한테 면접보고 입학한 조교님과 학생들도 만나게 되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Q. 가르치게 되실 과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포부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A. 여름 학기에는 아동 간호학실습과 선택간호실습을 맡았고 2학기에는 아동 간호학을 강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A.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되어서 매우 반갑고 함께 할 시간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 나규리 기자 / 사진 출처: 강창희 교수

\_10

## 2020학년 1학기 신임교수 인터뷰



조혜경 교수

2020년 새 학기를 맞아 따뜻한 봄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우송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조혜경 교수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게 된 계기와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혜경 교수는 다양한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풍부한 교육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간호 리더를 육성하는 우송간호에 들어오게 된 교수이다.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병태 약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으며 호스피스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심리 상담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꾸준히 해온 조혜경입니다.

**Q.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를 더 알고 싶어서 가정전문간호사나 호스피스 간호사와 같은 전문간호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저는 원래 대전에서 35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이고, 우송대학교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예의도 바르고 매사에 열정적이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A. 지금을 즐기고 후회 없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워낙 잘해서 바라는 점은 없지만, 지금을 즐기고 후회 없는 생활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저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면 될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최우영 기자 / 사진 출처: 조혜경 교수

\_11

## 2020학년 1학기 신임교수 인터뷰



김지순 교수

2020년 봄의 계절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지순 교수의 앞으로의 포부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지순 교수는 임상경력뿐만 아니라 여러 간호 관련 직종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수이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7년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치매와 관련된 국가보건정책연구가 있어 그곳에 적을 두고 8년 동안 국가정책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와 박사 학위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후, 산학 협력 중점 교수로서 1년 동안 제 전공인 간호실습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송대학교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우송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학교 안의 정원이 있어 아담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함께 올망졸망하고 하하 호호 웃는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에 오는 몇몇 학생들을 보니 다들 밝고 긍정적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질문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매우 예뻐 보였네요.

**Q. 앞으로 가르치게 되실 과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현재 1학년 학생들에게 성장과 발달과 해부생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생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실습과 여성간호학실습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좋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려 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기쁨을 얻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길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A. 우선으로는 자신의 꿈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언젠간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계속 꿈을 꾸다 보니 이렇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었으면 하네요.

◆ 최우영 기자 / 사진 출처: 조혜경 교수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안전 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는 '실외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운영 중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있다.

COVID-19 국민 예방 수칙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등이 포함된다.

우송대학교는 COVID-19로 인한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장려를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1인당 총 20만 원 한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우송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 진행되는 '제5기 Sol challenge Program'은 COVID-19로 인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학금은 똑같이 지급되나 해외탐방 대신 문헌 연구 보고서로 대체될 예정이다.

◆ 한지민 기자 / 사진출처: 질병관리본부



## 함께하는 우송간호, 새로운 만남을 가지다

'슬기로운 간호생활'

2020년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학과 내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슬기로운 간호생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의 문화국과 학술국의 주도하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40팀으로 이루어져 활동했으며 간호학과 학생 전체가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총 4번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팀마다 학교생활에 대해 공유하거나,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은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재학생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해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간호학과 3학년 진다훈 학생은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한정적인 부분이 많아 아쉬웠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어 영광이었고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여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 이서영 기자 / 사진출처: 원유정 학생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임상실습

3, 4학년 온라인 실습



COVID-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3, 4학년 임상실습을 온라인으로 전면 실시하였다. 3학년은 Zoom을 통해 8주간 성인1과 성인2, 아동, 여성 간호학 실습을 진행하였다. 4학년의 경우, 2019년도 겨울학기에 진행 중이던 실습이 COVID-19로 중단됨에 따라 성인2, 선택간호실습, 종합간호실습, 간호관리학 실습이 온라인실습으로 대체되었다.

온라인 실습이더라도 소수 정원으로 임상 실습 못지않게 꼼꼼한 교수님들의 지도와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이루어졌다.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들의 경우 동영상이나 Elsevier를 통해 관찰하였으며, V-simulation을 통해 간호사로서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소그룹을 만들어 역할극을 해보면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목마다 각자 사례연구를 개발하고, 교수님께 교육 및 피드백을 받았다. 하루 실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약 2시간씩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가지며, 당일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다.

학생 대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실습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지만, 임상에 직접 가서 경험해 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맘 편히 실습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유진 기자 / 사진출처 : 김지순 교수님

# 4학년, 취업을 대비한 모의 면접의 현장

세브란스 SI 모의 면접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에 한해 교수진들이 한해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에 적합한 복장 및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모의 면접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병원 면접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면접 복장 및 화장도 봐주시고, 면접의 태도나 모범 답안에 대해 지도해 주셔서 면접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모의 면접뿐만 아니라 자소서 첨삭, 영상통화를 이용한 모의 면접 진행도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강화경 기자 / 사진 출처: 정소영



## 3학년 러닝콘서트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예방 교육 포스터 만들기’



2020년 7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닝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러닝콘서트의 주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예방 교육’으로, 팀별로 주제에 대한 포스터 형식의 교육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러닝콘서트는 한 팀당 4명의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러닝콘서트를 통해 3학년 학생들은 대상자의 나이에 맞게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방법, 꼭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

3학년 조채은 학생은 “3학년 하계 실습을 하면서 여러 교과목에서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들을 만들었는데, 러닝콘서트를 통해서 더 세부적이지만 필요한 내용이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에 맞게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 양현수 기자 / 사진출처: 김영주 학생

## 4학년 러닝콘서트

‘간호과정 기획 관련 포스터 만들기’



2020년 6월 30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닝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러닝콘서트의 주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간호과정 기획’으로 각 사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호 과정을 작성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러닝 콘서트는 한 팀당 4명의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러닝콘서트를 통해 4학년 학생들은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간호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간호 목표 및 중재를 설정하고 수행 그리고 평가 순으로 간호 과정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포스터로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러닝콘서트에 활동했던 4학년 학생은 “포스터 제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기쁘다.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 간호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설희 기자 / 사진 출처: 정소영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신문 제작 동아리 'Sol-Times' 회장 조채은입니다. 저는 2020년 2학기부터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어, 이번 잡지 제작을 마무리하는 역할로 잡지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아리 임원진들과 함께 협력하며 잡지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동아리 부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이번 잡지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본 동아리의 잡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1년 동안 있었던 행사나 소식을 담고 있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아리 회장으로서 2020년 2학기의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월간지 및 잡지를 제작하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학과 홍보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L-NURSING TIMES



Sol-Nursing Times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동아리입니다. 우송간호의 소식과 행사를 담은 잡지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Sol-times는 글,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제 15호 2019년 2학기(2019. 9. 1 - 2020. 2. 28)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